



공항 주차장 만차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지난날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이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이 타고온 차량으로 가득차 있다.

“저물가, 식료품·에너지 가격 하락 탕”

한국은행은 저물가 현상의 원인으로 에너지, 식료품 등 비근원품목 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교육 등 서비스 품목의 오름세 역시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이후 대체로 2~4%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2012년 하반기 이후 1%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와 식료품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1.6%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2013년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물가변동을 구성품목별 기여도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거 평균(2006~2012년)에 비해 하락한 데는 에너지, 식료품 등 비근원품목이 약 80%, 서비스 중심의 근원 품목이 나머지 20%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근원품목 중 에너지 기여도와 식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교육·음식·숙박 등 서비스도 오름세 둔화 주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내외... 내년 상반기 2% 전망”

료품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1.6%포인트 끌어내렸다.

근원품목의 경우 기여도 변화가 미미했으나, 서비스 가격상승 둔화가 소비자물가를 0.4%p 하락시켰다.

세부품목별 물가기여도를 보면 서비스의 경우 교육과 음식 및 숙박이 물가 상승세 둔화를 주도했다.

이 중 교육서비스는 2009년부터 기여도가 하락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음식 및 숙박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여도가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거서비스는 전월세 가격상승을 반영 기여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기여도가 과거 평균(2006~2012년)과 유사했으며, 지난해

1월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0.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용품, 교통 등의 기여도가 낮아진 가운데 2014년 중반 이후 그동안 오름세를 주도했던 의류의 기여도 역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 내외에 머무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 내년 상반기에는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9% 상승하는데 그쳐 목표수준(2.0%)을 크게 밑돌았다”며 “그러나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점차 확대돼 내년 상반기 2.0%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를 크게 떨어뜨렸

던 공급측 요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수요측면의 물가하락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곡물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교역량 회복 등으로 국내외 경기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 물가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두 차례, 올 6월 한 차례 인하한 것도 시차를 두고 수요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은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말께 1%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에 이를 것”이라며 “다만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국제유가 하락,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내수요 위축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렴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상품물량 기준)은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항시장국 수입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선진국의 경기 개선세도 약화되면서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다. 수입(상품물량 기준)은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을 반영해 자본재 중심적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폭의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서비스 및 소득수지의 축소 등으로 흑자폭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예년(과거 10년) 평균 30.8만명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20대 남성 ‘대포통장 유혹’ 가장 취약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 65.6% · 20대 26.9%

‘대포통장의 유혹’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량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가운데 남성이 65.6%(8476명)로 여성 34.3%(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남성이 66.9%(999명)로 여성 33.0%(494명)의 2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6.9%(3471명),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에 달했다.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은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한 것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 가정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이 명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가 36.4%에 이르렀다. 생활고에 따른 강박, 뭇가를 헤아린다는 절실함 등이 남성을 대포통장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내년 해외·대체투자 2~3%p ↑

2021년까지 국민 40% · 공무원연금 44%로 확대 계획

정부가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금보다 2~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송영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내 주식·채권 투자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 고수익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28.0%인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내년 31.3%로 높인다. 공무원연금(33.7→35.9%)과 사학연금(33.8→36.6%)도 비중을 2~3%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국민연금은 40% 내외로, 공무원연금은 44%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과 군인연금도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에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투자 안정성 보완 조치도 병행한다. 대체투자 정보시스템(국민연금),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공무원연금)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사학연금)와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군인연금)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에 고위험 질병자 중 ▲6개월 이상 무진료자 ▲사망추정일 후 전입신고자 등을 추가해 현재 18종에서 22종으로 세분화한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공적자료에 ▲보험사기자명부 ▲고위험질병 진단 후 무진료자 명부 ▲요양기관 입소수급자 명부 등 5종을 추가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무장병원’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험등급을 세분화하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9월까지 7대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말 중기(10년)와 장기(70년) 재정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 운영을 통해 투자 정보·기법을 공유하고 자산운용인력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한은 “내년 성장률, 소폭 높아질 것”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수출 성장세 완만·수입 소폭 감소

인한 수출경쟁력 호전 등이 상당 부분으로 꼽혔다.

대외 불확실성 증대, 세계성장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회복 지연,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은 하방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민간소비는 올 2분기 중 상당폭 반등했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소득 여건 개선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추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금감면, 대규모 할인행사, 역모기지 대상주택 확대 등 다각적 정부대책은 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상당폭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인 2% 후반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6년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는 1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한 모습을 보여 올해 중 성장률이 2% 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데 힘입어 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신항시장국 경기 회복, 엔화 강세로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